

베네수엘라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1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4
V. 종합의견	16

베네수엘라

I. 일반개황

면적	916천 Km ²	GDP	2,278억 달러(2007년)
인구	27.66백만 명(2007년)	1인당 GDP	8,234달러(2007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Bolivar(Bs)
대외정책	중도실리	환율(달러당)	2.15(2007년)

- 베네수엘라는 세계 5위, OPEC 3위의 석유생산국으로 석유산업이 전체수출의 80%, 정부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는 등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경제상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차베스 대통령의 지지파와 반대파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2002년 4월에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2006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차베스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어 집권3기를 시작하였음.
- 차베스 대통령의 반미노선 추구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정회원국으로서 지역경제통합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제성장률	18.3	10.3	10.3	8.4	3.5
재정수지 / GDP	-1.9	1.6	0.0	3.0	-1.1
소비자물가상승률	21.8	16.0	13.7	18.7	31.2

자료 : IFS, EIU

□ 고도경제성장세 둔화 전망

-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이 4차례나 발생(2002년)하는 등 극도의 정국불안이 지속되고, 정국불안으로 인한 투자위축과 생필품 가격통제 및 외환통제로 인해 내수가 크게 위축되어 2002~03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9.1%와 -11.4%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4년 들어서는 국민소환투표라는 정국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높은 석유가격의 지속으로 인한 수출호조와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에 힘입어 18.3%의 기록적인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 2005~07년에도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수출호조와 정부의 확대재정정책, 그리고 실질금리 하락 등으로 내수 및 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8.4~10.3%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8년에는 연 30%를 넘어서는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소비 위축, 3/4분기 이후 국제 석유가격의 하락세 반전 등의 영향으로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고도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또한 2009년에는 동일요인이 더욱 심화되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재정수지 적자 반전 전망

- 베네수엘라는 석유산업이 재정수입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있어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정부재정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2004년 이후 지속된 높은 국제 석유가격 지속에 힘입은 재정수입 증대로 2005년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됨. 그러나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부지출의 확대에 의해 2005~2007년간 재정수지 흑자폭은 3% 이내로 정부수입의 확대에 비해 다소 작은 편임.
- 2000년 GDP의 10%에 불과하였던 재정수입이 2008년에는 30%에 육박하는 등 재정수입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차베스 정부의 인기영합주의적 정부지출 확대 지속으로 2008년 재정수지는 GDP의 1.1%에 해당하는 적자를 기록함.
- 일각에서는 차베스 정부가 석유 달러수입(revenue)의 자국화 가치 확대를 통한 정부수입의 증가를 위해 2009년 초 환율을 현 BsF2.15/달러에서 BsF3.0/달러로 평가절하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현재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국제 석유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09년 재정수지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물가상승률, 우려스러운 상황

- 베네수엘라는 지난 수십년간 두자리수의 물가상승률을 지속하는 등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어옴.
- 2006년에는 정부의 확대재정정책과 외환통제로 인한 시중 유동성 확대, 실질금리 하락, 최저임금 상승 그리고 국내 경공업제품 공급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세가 이어지면서 13.7%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도 생필품 공급 부족 및 수출호조에 따른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은 18.7%로 대폭 상승함.
- 이에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가격상한제 등 기존의 물가

안정 자구 노력과 더불어 2008년 1월에는 화폐단위를 조정(redomination) 하여 Bs1000에 해당하는 BsF(Boliviar Fuerte)를 도입하는 등 물가안정에 심혈을 기울임.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지속된 국제 석유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확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기조 유지 및 시장 개입주의적 정책에 따른 시장왜곡, 생필품 공급 부족 등으로 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 유가 하락기조로 재정수입에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 향후 정부의 평가절하 정책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2009년에는 물가상승률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물가상승 기조가 우려할 만한 상황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 석유산업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베네수엘라는 OPEC 회원국으로 세계 5위, 중남미 1위의 산유국이며, 석유산업이 수출의 80%, 재정수입의 50%, GDP의 25%를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제유가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 국제 석유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베네수엘라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대미 석유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수입이 30%를 차지하는 등 대미 경제의존도가 높은 편임.

□ 경제구조개혁 부진으로 성장 잠재력 낮아

- 석유의존경제 탈피를 위한 경제구조의 다양화 정책, 공공부문 합리화 및 세수기반 확대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득권 층의 반발 등으로 성과는 미흡한 실정임.

- 석유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나, PDVSA의 수입의 상당부분이 국가개발펀드를 통해 사회 인프라 개발사업에 쓰이도록 되어 있어 탐사 및 생산 활동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이며, 정국불안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기피로 석유산업의 발전 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외환통제 지속

-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국불안으로 인한 외화도피가 확산되자, 2003년 1월 22일 외환거래 일시(1.22-2.2) 중단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2월 6일부터는 외환통제를 실시하고 있음. 공식 환율은 외환통제 초기인 2003년 2월에는 달러당 Bs 1,600(BsF 1.6) 수준에서 2008년 11월 현재는 달러당 BsF2.15를 유지하고 있으며, 암시장에서는 달러당 약 BsF 5.4에서 거래되고 있음.
- 모든 외환거래는 베네수엘라 외환운영위원회(Cadivi)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민간끼리 자율적으로 교환하는 외환거래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범위 외에는 불법화함. 이와 관련하여 민간기업의 거센 항의가 지속되는 등 대내외적인 평가절하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베네수엘라 정부는 외환통제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단기간 내 외환통제 해제는 어려울 전망이다.

□ 토지개혁 추진

-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1년 토지법을 입법한 이후 전체 3,000만ha 농지의 80%를 빈농에게 넘기는 것을 목표로 유휴농지소유권이 문서화되지 않은 토지 등의 강제수용을 추진함.
- 이에 대해 전국축산업자협회 및 농장주들은 유휴토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며,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준비 기회도 주지 않는다면 거세게 항의하는 등 추진과정에서 반발이 지속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미미

- 1999-2001년 기간 중 연평균 38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기록하였으

나, 정국불안으로 외국인투자 실적이 감소추세를 보여 왔음. 특히 2006년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GDP대비 -0.3%를 기록하며 6억 달러의 순수출을 기록하였으며, 2007년 외국인 투자 유입액도 6억 달러 수준에 그침.

- 차베스 대통령의 급진 정책 추진으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향후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산업 국유화 가속화

- 2007년 1월 8일, 차베스 대통령은 모든 전략적 산업부문은 국유화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며, 특히 통신회사인 CANTV와 전력회사인 EDC에 대한 국유화 계획을 발표함.

* CANTV(Compania Anonima Nacional Telefonos de Venezuela)는 1991년 민영화된 베네수엘라내 최대의 사기업으로, 미국계 통신사인 Verizon이 멕시코 사업가인 Carlos Slim에게 CANTV 지분 28.5% 판매 계획을 추진 중이었음. 차베스 대통령의 국유화 조치 발표 후 뉴욕시장에서 CANTV의 주가는 이틀 동안 40%가 폭락하였음.

* EDC(Electricidad de Caracas)는 베네수엘라 최대의 전력회사로 2000년 미국계 전력사인 AES에 17억 달러에 86%지분이 적대적으로 인수된 바 있음.

- 2008년에도 아르헨티나의 시도르(철강), 프랑스의 라파르즈(시멘트), 스위스의 홀심(시멘트), 멕시코의 세멕스(시멘트), 스페인의 산탄데르(은행) 등 5개의 외국기업에 대한 국유화 계획을 잇달아 발표함.

*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2008년에는 실행되지 못하였으나, 5개 외국기업에 대한 국유화 입장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8년 11월에는 캐나다의 인터내셔널사가 운영하고 있는 금광 '라스 크리스티나스'도 2009년부터 국유화할 것임을 발표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 상 수 지	15,519	25,110	27,149	20,001	46,300
경 상 수 지 / GDP	13.8	17.3	14.7	8.8	14.7
상 품 수 지	22,647	31,452	32,712	23,702	52,400
수 출	39,668	55,647	65,210	69,165	99,200
수 입	17,021	24,195	32,498	45,463	46,800
외 환 보 유 액	17,867	22,346	27,844	17,873	18,677
총 외 채 잔 액	40,800	45,800	43,000	43,300	47,400
총 외 채 잔 액 / GDP	36.3	31.5	23.3	19.0	15.1
D. S. R.	17.1	9.3	13.3	8.2	6.5

자료 : IFS, EIU

□ 상품 및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 지속

- 석유수출이 총수출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산업구조상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국제수지가 크게 좌우되고 있음.
-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경상수지와 상품수지는 대규모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2005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17.3%인 25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6년에도 급속한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수출증가 폭이 수입증가 폭을 상회하여 경상수지 흑자액이 GDP의 14.7%인 27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7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수요가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액이 GDP의 8.8%인 2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8년에는 3/4분기까지 지속된 높은 국제 석유가격에 힘입어 수출액이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 경상수지 흑자액이 4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됨.

□ 외환보유액 감소

- 외환보유액은 정국불안으로 인한 외환도피로 인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에도 불구하고 2002년 말에 85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음. 2002년 중 외환도피로 인한 외환보유액 감소규모는 4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이 2003년 1월 베네수엘라 정부가 외환통제조치를 단행한 배경이 되었음.

- 그러나 2004년 이후 외환통제와 석유수출 증가로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 말 외환보유액은 278억 달러까지 증가하게 됨. 반면, 2007년에는 수입증가에 따른 경상수지 폭 감소 등의 영향으로 월평균수입액의 3.5개월 수준에 해당하는 179억 달러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임.

□ 외채규모 및 원리금 상환부담은 양호

- 2004년 베네수엘라의 총외채잔액은 GDP의 36.6%, 총수출의 95.26%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D.S.R.도 17.1%에 달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여 2007년 말 현재 총외채는 GDP의 19.1%인 433억 달러, D.S.R.도 8.2%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 심화와 정국불안 요인 상존

- 1998년 12월 빈곤층의 절대적 지지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차베스 대통령은 1999년 2월 취임 이후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고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헌법 제정 등 정치체제의 전면 개편을 추진함.
- 신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 강화와 야당 분열에 따른 정치적 견제세력의 부재 등으로 차베스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독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 이 과정에서 2002년 4월 9일 시작된 노조 총파업이 유혈시위로 발전하면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 차베스 대통령이 일시 축출되었으나 이틀 만에 재차 대통령으로 복귀하였음.
- 그러나 차베스의 권좌회복에도 불구하고 차베스 지지파와 반대파간의 극한 대립구도가 지속되었고, 12월에는 차베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4번째 총파업이 발생함에 따라 석유 수출이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가 50억 달러에 달하였음.
- 2003년 2월 1일 베네수엘라 최대 노조인 노동자연맹(CTV)을 중심으로 한 반정부 세력은 파업철회를 선언하였고, 19일에는 미주기구(OAS) 사무총장 세사르 가비리아의 중재로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권연합이 폭력사태 중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정국이 다소 진정국면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후 차베스 대통령이 신임투표 실시 방법과 시기에 대한 정쟁이 지속됨.

□ 2004년 국민소환투표 차베스 승리

- 2004년 8월에 최대 정국현안이었던 국민소환투표가 차베스 대통령의 승리로 마무리됨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정국 불확실성이 다소 감소되는 한편, 범야권연합단체인 민주연합(Coordinadora Democratica: CD)은 그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음.

□ 2005년 12월 총선에 야당 불참

- 민주행동당(AD), 기독교사회당(COPEI) 등 주요 야당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12월 4일 치러진 총선에서 차베스 대통령 지지세력이 모든 의석을 차지하는 사실상의 '1당 체제'가 출범함.
- 집권 제5공화국운동당(MVR)은 전체 의석 167석 중 3분의 2가 넘는 114석을 차지하였고, 나머지 의석도 차베스 지지 후보들로 채워졌음.

□ 2006년 대선에서 차베스 대통령 재집권 성공

- 한편, 2006년 12월 3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차베스 대통령이 62%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어 2007년 1월 10일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집권 3기를 시작하였음.
- 취임식을 앞두고 차베스 대통령은 신임내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1세기 사회주의"를 주창하며 향후 베네수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시킬 것을 선언하였으며, 아울러 베네수엘라의 주요 통신, 전력사의 국유화 계획을 발표함.
- 차베스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여당인 Movimiento Quinta Republica (MVR)당을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 (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 PSUV) 당으로 개칭하고 21개의 군소정당을 합류시켜 거대 단일정당을 만들고자 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1당 국가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는 비판이 일게 됨.
- 또한 2007년 1월 베네수엘라 의회는 차베스 대통령에게 향후 18개월간 대통령 포고령만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차베스 대통령은 독자적인 법률제정권을 갖게 되었음.

□ 2009년 개헌안 국민투표 예정

- 차베스 대통령은 2007년 12월 장기집권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음

나, 헌법개정에 실패함. 그러나 2008년 12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2009년 2월 재실시할 것임을 발표하는 등 2010년 대선 출마 의지가 확고함.

- 2008년 11월 22명의 주지사, 328명의 시장, 233명의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실시한 결과, 여당에서 17개 주지사가 선출되었으나, 수도인 카라카스의 시장이 야당에서 선출됨에 따라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으로 향후 2009년 개헌안 국민투표 및 2010년 대선에서 여당의 우위를 확신하기 어려움.

□ 미국과 관계 악화 지속

- 베네수엘라와 미국은 1999년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 이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 차베스가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차베스 대통령은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주장하며 쿠바, 리비아, 이라크 방문 등 미국을 자극하는 외교활동을 계속해 왔고, 미국이 2002년 쿠데타를 배후조정 했다는 의혹 등으로 인해 양국간 관계가 악화되었음.
- 2006년에도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대사관의 무관인 Mr. John Correa 대위의 스파이 혐의로 인한 추방과 이에 따른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영사인 Mrs. Jenny Figueredo 맞추방 사태, UN 비상임이사국 선출과 관련해 미국의 지원을 받은 과테말라와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차베스 대통령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가하는 등 베네수엘라와 미국간 신경전이 지속됨.되면서 양국간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또한 2007년 1월 차베스 대통령은 이란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20억 달러 규모의 반미전략투자펀드를 공동 조성하여 반미 국가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2008년에도 베네수엘라의 미국 대사 추방 및 이에 대응한 미국의 베네수엘라 주미대사 맞추방, 베네수엘라의 미 마약범죄 단속 협력 거부, 베네수엘라의 대미 원유 공급 중단 위협 등 양국간 관계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

□ 인접국과 잦은 긴장관계 형성

- 콜롬비아 좌익 반군지원 의혹, 멕시코의 세멕스 국유화, 차베스 정부의 페루 내 좌파세력 지원 의혹 등으로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 인접국과 잦은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갈등이 양국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임.
- 베네수엘라는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와 함께 안데스공동체(CAN) 회원국이었으나 콜롬비아와 페루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상을 추진하자 CAN을 탈퇴,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가입을 추진하는 등 지역통합 노력에는 적극적임.
- * Mercosur 가입국 중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베네수엘라의 Mercosur의 가입을 승인하였으나, 브라질과 파라과이 의회의 최종승인은 보류된 상태임.

2. 사회 및 소요사태

□ 중산층 부재로 사회 불안 지속

- 중산층이 거의 없으며 소수의 상류층과 절대 다수의 빈곤층과의 빈부격차가 커 사회범죄율이 높으며, 치안상태가 매우 불안함.

□ 장기적으로는 정국불안 재연가능성 상존

- 2002년에만 쿠데타 시도와 4번의 총파업이 발생하는 등 소요사태가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차베스 반대파와 지지파간의 대립의 골이 깊어 차베스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정국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이는 급진적 개혁정책을 둘러싼 기득권층과 빈민층간의 대립이 언제든지 물리적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차베스 반대파 중 강경파는 차베스 퇴진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사회주의로의 전환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라기 보다는 실질임금 상승, 빈곤축소 정책 등 사회복지 정

책에 기반한 것으로, 향후 차베스의 사회주의 노선이 강화될 경우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격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IV.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 Moody's: Caa1('03.1) -> B2('04.9)
- o S&P: B-('03.7) -> B ('04.8) -> B+('05.8) -> BB-('06.2)
- o Fitch: CCC+('03.1) -> B- ('03.6) -> B+('04.9) -> BB-('05.11)
- o OECD: 6등급('08.6)

2. 주요 ECA의 인수태도

- o US EXIM : 인수불가(No cover available)
- o 영국 ECGD : 정상인수(Full cover available)
- o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음(Restrictions will apply)

3. 외채상환태도

□ 외채위기 경험국이나, 외채 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

- 동국은 1983~84년 중 90일씩 5회 그리고 1988년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으며, 1990년 12월 브래디 플랜(Brady Plan)에 의거 총외채 380억 달러 중 196억 달러(원금탕감 20억 달러)에 이르는 대외채무를 재조정된 바 있음. 이후 베네수엘라의 외채 상환 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외환통제에도 불구하고 외채원리금은 정상 상환

- 외환통제에도 불구하고 외채원리금은 정상 상환하고 있으며, 수출 및 외환보유액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동국의 외채규모 및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교역규모는 1,333백만 달러 수준(2007)

- 수출: 1,233백만 달러
- 수입: 100백만 달러

□ 투자잔액은 21건 66백만 달러(2008년 9월)

V. 종합 의견

- 베네수엘라는 2004년 이후 국제유가의 상승에 힘입은 석유수출 호조 및 내수 회복으로 두자리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고도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차베스 정부의 시장개입 정책, 만성적인 물가상승기조에 따른 소비 위축과 더불어 최근의 국제 유가 하락세 반전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세가 하락기조로 반전됨.
- 현 차베스 대통령은 자원국유화, 소득 재분배, 외환통제 및 가격통제 등 좌파적 성향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를 주요골자로 하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등 정국 불안이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높은 빈부격차로 인한 치안불안, 인접국과의 잦은 마찰 등이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수년간 지속된 높은 국제석유가격에 힘입은 석유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 지속, 양호한 재정수지 유지, 외채부담 감소 등 경제여건이 개선됨.